

공직자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 상위 10명 중 3명 경북

박영서 의원 116.8억 경북 최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15억 신고 공개대상자 51%, 재산 5억미만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 10위에 경북에서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영서 경북도 의원(116억8천100만원), 김수문 경북도의원(107억8천200만원),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103억9천100만원)가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정병운 경북도립대 총장은 상위 10위 밖이나 100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억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400만원이 증가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64억1800만원으로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에 경북에서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북도립대 총장, 도의원(57명), 시장·군수(22명) 등 83명이 포함됐다.

경북개발공사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 285명은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285명 신고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900만원이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66%(189명)은 재산이 늘었다. 평균 증가액은 1억27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 51%(144명)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다. 5억~10억원 73명, 10억~20억원 41명, 20억~50억원 23명, 50억원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전남 공직자 10명 중 1명 재산 1년간 1억이상 증가

최고 재력이 이동현 도의원 79억 공직자 328명 평균 재산 8.1억 김영록 전남도지사 18억 보유

전남 도내 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허정임 함평군의회원으로 18억3000만원을 불렀다. 허 의원은 재산은 66억9000만원이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은 도지사·부지사·고위공무원·도의원·시장·군수·시군의원·유관단체 임원 등 328명이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1728만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213명, 준 대상자는 115명이다.

재산 신고액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신고자는 77

명이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공직자는 15명이다.

전년도보다 재산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증가한 공직자는 71명 21.6%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늘어난 공직자는 49명 14.9%이다.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모두 42명으로 12.8%였으며, 재산이 준 경우는 115명 35.1%이다.

재산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급여저축 등이며, 생활비 지출과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허 의원은 부동산 매입, 부동산 임대 소득 증가, 예금 소득 증가 등이었다.

최고 재력가는 이동현 전남도의회원으로 78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7900만원이 증가한 18억7200만원을 신고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 공직자 최고 47억 단체장 재산 평균 7억

시의원 평균은 6.7억

이용섭 광주시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47억원으로 광주 단체장·광역의원 중 최고의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시장은 작년보다 1억37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을 신고했다. 아파트 등 공시지가 상승과 어머니로부터 전남 함평의 집을 상속받아 재산이 늘었다.

최고 재력가인 임미란 의원은 6억9800만원이 늘어난 47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시장과 5개 구단체장, 22명 시의원의 평균 재산은 6억7500만원이었다.

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7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6억4900만원이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신고액은 8억7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7800만원 증가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굿크리에이터 캠페인.

경북도 크리에이터와 코로나 극복 희망메시지

경북도가 국내 유명 스타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희망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벌인다.

경북도는 한국MCN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대구경북에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굿 크리에이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MCN협회는 글랜스TV, 다이아TV, 트레저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70여개 MCN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소속된 크리에이터는 약 1만 여명으로 MCN 및 크리에이터 산업 진흥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대표 MCN 비영리단체다.

대국민 희망 메시지는 한국MCN협회가 진행 중인 굿 크리에이터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자 스타들의 재능기부와 동참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종식 선언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홍진영, 제아, 공원소녀, 유튜브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킷백 등이 참여했으며 추가로 여러 스타와 크리에이터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1000억 투입’ 고양시민에 위기극복지원금

이재준 시장 “선별적 지급 필요”
도 재난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1000억 가용재원 마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이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청

아울러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 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3월 27일(금)
음력 : 3월 4일

수도권 날씨
11 ~ 1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25 | 해질 / 18:50

연천 10/17, 동두천 10/18, 가평 10/18, 파주 9/16, 서울 11/16, 양평 13/18, 인천 9/14, 수원 11/15, 용인 11/15, 평택 10/16, 백령도 6/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도, 택시업 종사자에 35억 긴급지원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전라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도비 3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키로 한 긴급 생활비(30~50

만원)와 별개로, 승객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택시 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버스·택시업계에게 마스크 3만 개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난해 버스업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36억 원도 신속히 집행했다. 또 해당 사업의 재원인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12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버스·택시·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한 차량 및 시설 방역을 위해 별도로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마스크와 소독약,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이달 내로 추가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전남=양수영 기자